

초대형 스케일로 액션의 신세계를 보여줄 두 작품

블록버스터 VS 영화

올겨울 한파를 한 방에 날려버릴 짜릿한 액션 블록버스터 두 편이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다.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할 '메이즈 러너: 데스 큐어'와 리암 니슨 주연의 '커뮤터'가 그 주인공이다.

메이즈 러너: 데스 큐어
압도적인 비주얼로 긴장감 선사

커뮤터
열차 안에서 펼쳐지는 역동적 액션



'메이즈러너:데스 큐어' 스틸컷.

/이심세기픽스코리아



'커뮤터' 스틸컷.

/메가박스(주)플러스엠

◆ '메이즈 러너: 데스 큐어' 극강의 액션 스킬

시리즈 사상 최고의 스킬과 스케일을 예고하는 블록버스터 '메이즈 러너: 데스 큐어' (감독 웨스 볼)가 오는 17일 개봉한다.

영화 '메이즈 러너: 데스 큐어'는 인류를 위협하는 조직 '위키드'에 맞서기 위해 다시 거대한 미로로 들어간 주인공 톰아스와 '러너' (밤마다 살아 움직이는 미로를 달려 탈출 지도를 만드는 사람들)들의 마지막 생존 사투를 그린다.

'메이즈 러너: 데스 큐어'는 대서사의 마지막답게 압도적인 비주얼을 담았다. 전작에서 '메이즈 러너'의 미로는 지금껏 어떤 영화에서도 본 적 없는 압도적

인 스케일로 최고의 긴장감을 선사했다. 덩굴 식물로 뒤덮였던 미로는 음산한 분위기를 조성할뿐만 아니라 미로의 벽이 위협적인 칼날로 변하는 모습, 미로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 '그리버'에게 쫓기는 러너들의 처절한 생존 액션은 관객에게 짜릿한 스릴을 전했다.

전편에서 위험한 미로를 탈출해 폐허가 된 도시 '스코치'에 도착했던 러너들이 이번 편에서 또 다시 미로 속으로 들어간다. 위키드 본부에 갇힌 러너 중 한 명인 민호를 구하기 위함이다. 복잡하고 거대하게 얽힌 미로 사이에 위치한 위키드의 본부이자 최후의 도시로 향하는 러너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지, 매 시리즈

마다 상상을 뛰어넘는 액션과 볼거리를 선보인 시리즈의 최종편에 대한 관객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지구를 덮쳐 인류의 대부분을 몰살한 바이러스의 치료제를 개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 위키드가 사실은 미로 속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한 점을 비롯해 추악한 실체가 완전히 공개된다.

◆ '커뮤터' 리암 니슨의 열차 액션

할리우드 액션 블록버스터 흥행 불패 신화 리암 니슨이 영화 '커뮤터' (감독 자음 콜렛 세라)로 3년 만에 스크린 컴백에 나선다.

영화 '커뮤터'는 제한 시간 30분, 가족이 인질로 잡힌 전직 경찰 마이클(리

암 니슨)이 사상 최악의 열차 테러범들에게 맞서는 초대형 액션 블록버스터다. 리암 니슨 표 브랜드 액션 3부작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할 이번 영화는 '테이큰' 시리즈, '논스톱' 제작진과 리암 니슨의 만남, 그리고 제작비 6000만 달러의 초대형 스케일로 전 세계 영화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리암 니슨의 시선으로 진행되는 생동감 넘치는 카메라 연출은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듯한 리얼한 스토리와 속도감 있는 전개로 쫓쫓한 긴장감과 짜릿한 전율을 일으킨다.

여기에 뉴욕 도심에 가로지르는 열차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펼쳐지는 폭발적

인 액션 시퀀스는 관객들에게 눈을 땔 수 없게 만들 예정. '커뮤터'를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한 리암 니슨은 긴박감 넘치는 추격전과 총격전, 역동적인 육탄전 등 열차 안팎을 넘나들며 액션 연기를 펼친다. 무엇보다 한정된 시간인 30분, 한정된 공간인 열차 안에서 펼쳐지는 액션이 관객의 몰입도를 높인다. 앞서 봉준호 감독의 할리우드 진출작인 '설국열차'와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 역시 열차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펼쳐지는 스토리로 관객을 사로잡은 바 있다. 흥행 열차의 바통을 이어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개봉.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폭발적 스피드가 매력... 올림픽 '흥행보증수표'

알고보는 평창동계올림픽 4 아이스하키

제한 없는 선수교체로 속도감 짜릿 격한 몸싸움도 아이스하키만의 매력



지난달 13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의 VTB 아이스 팰리스에서 열린 2017 유로하키투어 채널원컵 개막전 한국-캐나다 경기에서 신상우(가운데)가 캐나다 선수들에 둘러싸인 채 퍽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 한국팀은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랭킹 1위 캐나다에 2-4로 석패했으나 기대 이상의 선전을 펼치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희망을 밝혔다.

/연합뉴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전 종목 중 티켓 값이 가장 비싼 종목은 남자 아이스하키 결승전이다. 최고 90만원으로 인기 종목으로 꼽히는 피겨스케이팅 결승(80만원)보다 높다.

아이스하키는 동계올림픽의 '흥행 보증 수표'로 불린다. 전제 입장 수입을 보면 2010년 밴쿠버올림픽에서 50%,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 46%의 비중을 차지했다.

소치올림픽에서는 타 종목보다 월등히 높은 티켓 가격을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남자 아이스하키 결승 티켓 최고가는 1320달러(약 147만원)로 타 종목보다 비쌌다.

금메달 수가 2개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아이스하키가 동계올림픽의 대표 인기 종목으로 꼽히는 가장 큰 이유는 스피드 때문이다.

경기를 시작할 때의 속도감이 끝날 때까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는데, 그 비결

은 바로 제한 없는 선수 교체다.

아이스하키는 말 그대로 얼음 위에서 하는 하키다. 올림픽 엔트리 수는 골리(골키퍼)를 포함한 남자 25명, 여자 23명이다.

총 6명이 한 팀을 이뤄 경기를 진행하는데 골리를 제외하고 공격수 3명, 수비수 2

명으로 이뤄진 한 조를 라인이라고 한다.

보통 1라인부터 4라인까지 나뉘어 경기에서 나서는, 한 라인이 빙판 위에서 경기하는 시간은 약 50초 가량이다. 이 시간이 지나면 다음 라인이 투입된다. 20분씩 총 3피리어드로 진행되는 경기에서 50초~1분 간격으로 쉼 없이 선수가 교체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폭발적인 스피드가 경기 끝까지 지속된다.

격투를 방불케하는 격렬한 몸싸움 역시 아이스하키만의 매력이다.

5명의 스케이터가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면서 고무로 된 납작한 볼 '퍽'을 연결해 상대팀 골대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높이 1.22m, 너비 1.83m의 골문 앞에서 퍽을 막는 골리는 마스크, 체스터, 레그 패드, 블로커, 글러브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골문을 향해 날아오는 퍽이 총알처럼 빠르기 때문이다. 슛이 강한 선수들의 퍽 속도는 160km 이상 나오기도 한다. 골리아닌 스케이터도 보호 장비를 착용한다.

한국에서 아이스하키는 야구, 축구처럼

높은 인기를 얻는 종목은 아니다. 국내 남자 실업팀이 단 3개(안양 한라, 하이원, 대명 킬러웨일즈)에 불과할 정도로 비인기 종목에 속한다.

그러나 한국 아이스하키는 동양인 최초로 NHL 스탠리컵을 두 차례 들어올린 백지선 감독과 NHL 스타 선수 출신 박용수 코치의 부임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백지선호'는 평창올림픽 A조에서 캐나다, 체코(6위), 스위스(7위)와 맞붙는다.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도 개최국 자격으로 평창올림픽에서 첫 올림픽 무대를 밟는다. 여자 대표팀의 세계랭킹은 현재 22위로 남자 대표팀(21위)보다 1계단 낮지만 열정 만큼은 남자팀 못지 않다.

여자 대표팀은 지난해 열린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사상 최초로 중국을 꺾는 이변을 연출했으며, 지난해 4월 세계선수권 4부리그에서 5전 전승을 거두며 우승을 차지, 3부 리그로 승격했다.

이후 해외 전지훈련을 통해 실력을 다진 여자 대표팀은 평창올림픽에서 스웨덴(5위), 스위스(6위), 일본(9위)와 B조에서 격돌한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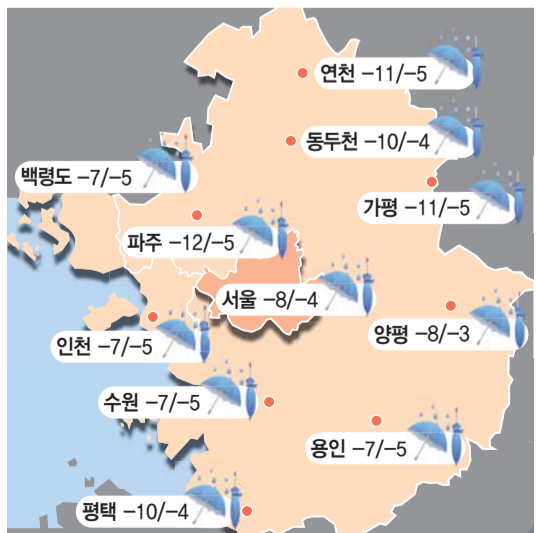
해돋이 / 07:47 | 해질 / 17:32

1월 10일
음력 : 11월 24일

수도권 날씨

-8 ~ -4°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스포츠 한줄 News

▲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활약하는 손흥민(토트넘)의 몸값이 7260만유로(약 929억원)로 평가됐다.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5대 빅리그에서 전체 56위다.



▲ 북한이 9일 관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고위급회담 첫 전체회의에서 평창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을 파견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들어 남북 체육교류의 디딤돌이 된 '국기(國技)' 태권도가 평창올림픽에서도 화합의 중심에 서게 됐다.

▲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지난 시즌 프로축구 K리그에서 활동한 심판들은 주심 1인당 평균 4300만원, 부심 4000만원의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 김시우, 김민휘, 배상문 등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코리아인 3인방이 12일부터 나흘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PGA투어 소니오픈에서 새해 첫 우승에 도전장을 냈다.

▲ 프로축구 포항 스틸러스가 지난해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편수비형 미드필더 코너 채프만을 영입해 올해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무리했다.

▲ 지난해 하반기부터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1부리그)에 도입됐던 비디오판독(VAR)이 올 시즌에는 K리그 챌린지(2부리그)로 확대될 전망이다.